

신채호의 문학의 기본특징

한중모*

【국문초록】

광복 전 문학사에서 단재 신채호는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는 문학가의 한사람이다. 그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의 강점과 식민지통치로 조선민족이 식민지 노예의 비운을 겪고 있던 엄혹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진보적인 문필활동을 전개한 애국문화계몽 운동가이고 저명한 역사학자이며 특이한 창작적 개성을 가진 작가였다.

조선에 있을 때 창작·발표된 작품들과 해외 망명시기에 집필된 작품들을 두루 종합하여 분석연구해보면 신채호의 문학에서 두드러지는 하나의 중요한 특징을 포착할 수 있다. 그의 문학작품에 관통되어있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분방하고 기발한 낭만주의적인 수법과 형상을 통하여 애국주의사상을 불처럼 뜨겁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신채호의 문학에서 애국주의 사상은 망국에 대한 울분과 빼앗긴 조국에 대한 그리움, 조국광복에 대한 열망과 조국을 위한 희생정신, 일제침략세력과 매국역적배에 대한 적개심과 증오, 조국과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등 여러모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신채호는 시종일관 순수문학, 예술을 위한 예술을 반대·배격하고 문학예술의 사회적 기능을 적극 주장하였다. 특히 그는 문학이 그 미학정서적 감화력으로 인하여 사람들을 애국주의정신으로 교양하는데서 그 무엇보다도 비길 수 없는 커다란 기능과 역할을 한다고 간주하였다. 신채호는 문학을 사상교양의 힘 있는 수단으로 보는 견해와 관점으로부터 인민들을 애국주의사상으로 감화·교양하는데 이바지하는 작품들의 출현을 촉구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이 직접 애국주의 교양에 도움을 주는 작품 창작에 주력하였다.

* 사회과학원 주체문학연구소 원사

신채호는 인민들 속에 애국심을 키워주는데서 자기 나라 역사를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이로부터 문학활동에서 역사물 창작에 깊은 관심을 돌리었다. 나라의 존엄과 민족의 운명을 지키고 빛내는데서 애국자, 영웅의 중요한 역할에 대한 이와 같은 이해로부터 출발하여 자기의 역사전기소설들에서 조선의 애국명장들인 을지문덕, 이순신, 최영의 활동과 투쟁에 대하여 묘사하였다.

독특한 낭만주의적인 수법과 형상을 통하여 애국주의 사상을 강렬하게 표현한 신채호의 문학 특징은 그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미완성 중편소설 「꿈하늘」에서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주인공 한놈이 하늘과 땅, 천국과 지옥을 오르내리면서 엄청나게 큰 무궁화꽃송이에 앉아서 고구려 군사들이 수나라의 수 백 만 대군을 몰살시킨 살수 싸움의 승리도 목격하고 을지문덕 장군과 무궁화 꽃송이가 주고받는 화답시에 담긴 우국심에 눈물도 흘리는 등 특이한 형상을 통하여 악독한 일제 침략자들을 물리치고 조국광복을 이룩한 데 대한 사상을 예술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조국의 광복을 성취하고 민족의 융성번영을 이룩한 데 대한 강렬한 지향은 신채호의 시에서도 세차게 굽이쳐 흐르고 있다. 「한나라 생각」, 「너의 것」 등의 작품에서 조국을 위한 투쟁에서의 헌신성과 자기희생 정신에 대한 시적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

신채호의 문학에서 반일 애국사상과 조국 광복에 대한 열망, 그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지향은 민족의 우수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민족자주의식과 결부되어 표현되고 있다. 「꿈하늘」에서는 한놈이 넘나라에서 본 옛날 성현과 영웅들에 대하여 서술한 대목에 이르기까지 조선민족의 기개와 용맹, 슬기와 재능에 대하여 긍지높이 형상화하고 있다.

1928년 일제 경찰에 체포되기 직전에 창작된 것으로 인정되는 단편소설 「용과 용의 대격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창작활동의 말기에 신채호의 문학은 무산 민중혁명의 승리를 형상적으로 천명하는 데로 나아갔다.

신채호의 문학은 일정한 사상예술적 제한성을 가지고 있지만 일제 식민통치의 압박한 시기 특이한 낭만주의적 수법과 형상으로 애국주의사상을 강렬하게 표현한 것으로 하여 조선의 근대문학사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

주제어 신채호, 신채호 문학, 애국주의사상, 역사전기소설, 이태리건국삼걸전, 꿈하늘, 너의 것, 반일애국사상, 용과 용의 대격전

광복 전 조선문학사에서 단재 신채호는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는 문학가의 한사람이다. 신채호는 복잡다단하였던 20세기 초엽에 다방면적인 문학활동을 전개하여 여러 형식의 작품들을 많이 창작함으로써 조선근대문학의 형성발전과정에 뚜렷한 자욱을 남겼다.

위대한 ○○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다.

‘신채호는 권위 있는 력사학자인 동시에 이름난 작가, 정론가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정말 글을 잘 썼습니다.’(회고록 『세기와 더불어(계승본)』8권, 392페이지)

신채호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의 강점과 식민지통치로 조국강토에 망국의 검은 구름이 무겁게 드리우고 조선민족이 식민지 노예의 비운을 겪고 있던 엄혹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진보적인 문필활동을 전개한 애국문화 계몽운동가이고 저명한 력사학자이며 특이한 창작적 개성을 가진 작가였다.

지난 세기 벽두에 신채호는 『황성신문』 론설위원, 『대한매일신보』 주필 등을 력임하면서 여러 신문, 잡지들에 사회·정치적으로 절실하고 의의있는 문제들을 취급한 많은 론설들을 써내는 것과 함께 문학평론과 력사전기 소설들을 창작 발표함으로써 인민들 속에 애국정신과 민족자주의식, 반일사상을 고취하기에 힘썼다. 신채호는 그 후 해외에 망명하여 반일 독립운동에 참가하는 간고한 조건에서도 신문 편집·발행 사업과 론설집필, 국사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문학창작에 정력을 기울여 많은 시, 소설, 문학평론 등을 남겨놓았다. 해외 망명시기에 창작된 신채호는 문학작품들의 대부분은 발표되지 못한 채 묻혀 있다가 광복 후에야 알려지게 되었다.

조선에 있을 때 창작 발표된 작품들과 해외 망명시기에 집필된 작품들을 두루 종합하여 분석·연구해보면 신채호의 문학에서 두드러지는 하나의 중요한 특징을 포착할 수 있다. 신채호의 문학작품들에 관통되어 있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분방하고 기발한 량만주의적인 수법과 형상을 통하여 애국

주의사상을 불처럼 뜨겁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신채호의 문학에서 애국주의사상은 망국에 대한 울분과 빼앗긴 조국에 대한 그리움, 조국 광복에 대한 열망과 조국을 위한 희생정신, 일제 침략세력과 매국 역적배에 대한 적개심과 증오, 조국과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등 여러모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어찌하여 애국주의사상에 대한 강렬한 예술적 표현이 신채호의 문학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을 이루게 되었는가. 그의 문학의 이와 같은 기본 특징을 규정할 주된 요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문학을 사람들에게 대한 애국주의 교양의 힘 있는 수단으로 본 신채호의 견해와 관점, 그의 문학관과 관련되어 있다.

신채호는 시종일관 순수문학, 예술을 위한 예술을 반대·배격하고 문학 예술의 사회적 기능을 적극 주장하였다. 특히 그는 문학이 그 미학정서적 감화력으로 하여 사람들을 애국주의정신으로 교양하는데서 그 무엇보다도 비길 수 없는 커다란 기능과 역할을 한다고 간주하였다.

문학의 사상·교양적 기능을 증시하는 신채호의 견해와 관점은 그의 문학 평론들인 「근금 국문소설저자의 주의」(1908), 「소설가의 추세」(1909), 「천 회당시화」(1909) 등에 뚜렷이 밝혀져 있다. 그는 이 글들에서 소설은 「국민의 라침판」이며 시는 「국민언어의 정화」라고 하면서 소설이나 시와 같은 문학이 그 특유한 정서적 감화력과 견인력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대한 사상교양과 정신도덕적 수양에서 종교, 정치, 법률보다 더 큰 작용을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문학창작을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와 관련되는 중대사로 강조하였다.

신채호는 문학을 사상교양의 힘 있는 수단으로 보는 견해와 관점으로 부터 인민들을 애국주의사상으로 감화·교양하는데 이바지하는 작품들의 출현을 촉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애국주의교양에 도움을 주는 작품창작에 주력하였다.

애국심과 민족의식, 조국의 광복과 독립에 대한 지향이 세차게 맥박 치는 신채호의 문학의 특징을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작품들로서 먼저 주목을 끄는 것은 역사전기소설이다.

신채호는 인민들 속에 애국심을 키워주는데서 자기 나라 역사를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이로부터 문학 활동에서 역사물 창작에 깊은 관심을 돌렸다. 그가 역사전기소설의 창작으로부터 문학 활동을 시작한 것은 이러한 시정과 관련되어있다.

신채호가 처음에 세상에 내놓은 역사전기소설은 1907년에 발행한 「이태리건국삼걸전」이다. 그것은 중국의 근대 문화계몽 운동가인 량계초의 소설을 역술한 것이지만 거기에는 단재의 문학적 견해와 작가적 면모를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 있다.

이 소설책의 서론에서 신채호는 한 나라의 흥망성쇠에서 애국자가 노는 역할을 강조하고 조국 강토가 처참한 지경에 이른 지금이야말로 애국자가 출현할 때라고 격조높이 논술하면서 자기가 이 책을 저술하는 피의 소원이 이탈리아의 세 애국자의 역사를 소개하여 조선의 삼걸전, 삼십걸전, 삼백걸전을 다시 쓰게 하는 것이라고 절규하였다.

신채호는 「이태리건국삼걸전」을 역술출판한데 이어 1908~1909년간에 조선의 애국명장들의 생애와 활동을 재현한 역사전기소설들인 「을지문덕」, 「성웅 리순신」, 「최도통전」(상편)을 연속 집필 발표함으로써 전기소설가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였다.

신채호는 역사전기소설 「을지문덕」의 서론에서 한 나라의 강토와 한 민족의 운명은 그 나라 영웅의 헌신적 투쟁에 달려있다고 하면서 '지나간 영웅을 기록하여 장래의 영웅을 부르노라'라고 외쳤다. 여기서 신채호가 말하는 영웅은 「이태리건국삼걸전」의 서론에서 논한 애국자와 공통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는 나라와 민족을 지키고 빛내기 위하여 한 몸 바

쳐 피 흘려 싸우는데 '영웅의 진면목'이 있다고 간주하였던 것이다.

신채호는 나라의 존엄과 민족의 운명을 지키고 빛내는 데서 애국자, 영웅의 중요한 역할에 대한 이와 같은 리해로부터 출발하여 자기의 력사전기소설들에서 조선의 애국명장들인 을지문덕, 리순신, 최영의 활동과 투쟁에 대하여 묘사하였다. 이 작품들에서 주목되는 것은 을지문덕, 리순신, 최영이 반침략 조국방위투쟁에서 발휘한 애국충정과 영용성에 중점을 두고 그들의 성격을 묘사하면서 주인공들의 웅대한 계략과 고상한 희생정신, 민족자주의식과 독립정신, 상무정신 등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

신채호는 작품들에서 주인공들의 형상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력사적 사건과 실재한 사실에 의거하면서도 대담한 과장법과 기발한 비유법을 도입 활용하고 활달하고 격동적인 문체를 분방하게 구사함으로써 그들의 성격적 특질을 두드러지게 그려냈다.

신채호의 력사전기소설들은 이러한 사상예술적 특성으로 하여 일제침략자들에게 빼앗긴 국권을 회복하고 나라의 자주독립을 이룩하는 것이 초미의 과제로 나섰던 당시 조선의 사회력사적 현실에 맞게 인민들 속에 애국심과 민족자주의식을 북돋아주는데 이바지할 수 있었다.

독특한 낭만주의적인 수법과 형상을 통하여 애국주의사상을 강렬하게 표현한 신채호의 문학의 특징은 그의 대표작이라고 할수 있는 미완성 중편소설 「꿈하늘」(1916)에서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중편소설 「꿈하늘」의 주인공 한놈은 처음에는 쇠잔한 나라의 운명을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며 주검이 땅을 덮고 하늘이 핏빛으로 물드는 처참한 싸움마당을 보고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 나약한 인간이었지만 무궁화 꽃송이의 고무격려로 '우리나라 사람이 다 가는 싸움'의 길, 조국 광복을 위한 투쟁의 길에 나서게 된다. 그리고 길을 같이 가던 여섯 동지가 도중에서 고통을 이기지 못하거나 황금에 눈이 어두워서 떨어지고 시기·질투로 서로 죽

이는가 하면 목숨을 건져 종살이라도 하겠다고 적진으로 달아나는 등 다 떨어져나가지만 그는 갖은 간난신고를 이겨내고 싸움터에 이르러 원수와 정면 대결을 하게 된다.

「꿈하늘」은 한놈이 하늘과 땅, 천국과 지옥을 오르내리면서 엄청나게 큰 무궁화 꽃송이에 앉아서 고구려 군사들이 수나라의 수 백 만 대군을 몰살시킨 살수싸움의 승리도 목격하고 을지문덕 장군과 무궁화 꽃송이가 주고받는 화답시에 담긴 우국심에 눈물도 흘리며 싸움터에서 임진왜란 때의 조선침략의 원흉인 풍신수길과 맞다들어 대결을 하는가 하면 지옥의 순옥사자가 된 강감찬 장군에게서 훈계를 받아 나라를 사랑할 뜻을 굳게 다지고 남나라에 가서 먼지가 뽕양게 낀 하늘을 빗자루로 쓰는 것과 같은 특이한 형상을 통하여 악독한 일제 침략자들을 물리치고 조국광복을 이룩할 때에 대한 사상을 예술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조국의 광복을 성취하고 민족의 룡성·번영을 이룩할 때에 대한 강렬한 지향은 신채호의 시에서도 세차게 굽이쳐 흐르고 있다.

신채호가 고국을 떠나 해외망명의 길에 오르면서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시 「한나라 생각」에서 나와 너의 사랑사이를 칼로 썬 베여 고우나고운 피덩어리가 줄줄줄 흘러내리면 '한주먹 덩석 그 피를 쥐여 / 한나라 땅에 골고루 뿌리리 / 떨어지는 곳마다 꽃이 피어서 / 봄맞이하리'라고 노래한 것은 한 목숨 바쳐 조국의 광복과 룡성·번영을 이룩하리라는 불같은 마음에 대한 격조 높은 토로이다.

모든 것을 다 바쳐 조국을 위하리라는 열렬한 애국충정은 시 「너의 것」에서도 뜨겁게 흘러넘치고 있다.

너의 눈은 해가 되어
여기저기 비치우고지고
님의 나라 밝아지게

너의 피는 꽃이 되어
여기저기 피고지고
님나라 고와지게

너의 숨은 바람되어
여기저기 불고지고
님나라 깨끗하게

너의 말은 불이 되어
여기저기 타고지고
님나라 더워지게

5련으로 되어 있는 이 시에서 이처럼 눈, 피, 숨, 말 등 자기의 모든 것을 외적에게 짓밟힌 님나라를 밝고 아름답게, 깨끗하고 더워지게 되살리는데 기꺼이 바치며 나중에는 '살은 찌어 흙이 되고 / 뼈는 굳어 돌 되어라 / 님나라에 보태지게'될 것을 바라는 서정적 주인공의 열화 같은 외침은 조국을 위한 투쟁에서의 헌신성과 자기희생 정신에 대한 시적 표현이다.

신채호의 문학에서 반일애국사상과 조국광복에 대한 열망, 그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지향은 민족의 우수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민족자주의식과 결부되어 표현되고 있다.

중편소설 「꿈하늘」에서는 을지문덕 장군의 지휘 밑에 고구려 군사들이 수백만 적군에게 섬멸적 타격을 주고 커다란 승리를 이룩한 살수싸움을 그린 첫 장면에서부터 한놈이 님나라에서 본 옛날 성현과 영웅들에 대하여 서술한 대목에 이르기까지 조선민족의 기개와 용맹, 슬기와 재능에 대하여 긍지높이 형상화하고 있다.

또한 소설에서 한놈이 지옥에 떨어져 들어갔을 때 순옥사자 강감찬이 나라에 큰 죄를 짓고 지옥으로 오는 국적, 매국노들을 꺾으면서 '딸각딸각 나막신을 신고 걸음걸음 적국 놈의 본을 뜨며 옷 입고 밥 먹는 것도 모두 닭

으러하며 자식이 나거든 내 말을 버리고 적국 말을 가르치는 놈', 또 '말도 남의 말만 알고 풍속도 남의 풍속만 쫓고 종교나 학문이나 력사 같은 것도 남의 것을 제 것으로 알아 로씨야에 가면 로씨야인이 되고 미국에 가면 미국인되는 놈들', 그리고 '동양의 아무 나라가 잘 되여야 우리의 독립을 찾으리라 하며, 서양의 아무 나라가 우리 일을 보아 주어야 무엇을 하여볼 수 있다 하여 외교를 의뢰하여 국민의 사상을 약하게 하는 놈들'을 비롯한形形色색의 매국역적들을 지탄하고 한놈에게 오직 나라사랑하는 사람으로 남나라에 가라고 하는 대목은 사대주의와 민족 허무주의를 타매, 배격하고 민족자주의식을 표현한 것이다.

신채호의 문학에서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 민족자주의식은 반일애국투쟁의 기백, 조국광복과 민족적 독립의 지향을 예술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하는 사상정신적 바탕으로 되고 있다.

1928년 일제 경찰에 체포되기 직전에 창작된 것으로 인정되는 단편소설 「룡과 룡의 대격전」에서 볼 수 있는바와 같이 창작활동의 말기에 신채호의 문학은 무산민중혁명의 승리를 형상적으로 천명하는 데로 나아갔다. 그러나 그의 말기문학에서도 의연히 반일애국사상과 민족자주의식이 맥맥이 흐르고 있는 것을 감득할 수 있다.

신채호의 문학에는 사회력사와 반일민족해방투쟁에서 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그 역할을 보여주지 못하였고 형상이 예술적으로 무르익지 못한 것과 같은 제한성도 있다.

신채호의 문학은 일정한 사상예술적 제한성을 가지고 있지만 일제식민지 통치의 암담한 시기 특이한 량만주의적 수법과 형상으로 애국주의사상을 강렬하게 표현한 것으로 하여 조선의 근대문학사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

Abstract

Basic feature of Sin Chae-Ho's literature

Han, Jung-Mo

Danjae Sin Chae-Ho is a literary man who secures a particular position from a literary history before the restoration of independence. He is a ideologist of enlightenment who does progressive literary pursuits in severe social environment where Joseon's nation had the misfortune owing to occupation of Japan and a colonial policy. Sin Chae-Ho is also a prominent historian and writer who has individuality of particular creation.

The best fundamental figure of Sin Chae-Ho's literature is to have free and uncommon romanticism in a gloomy times of Japan's colonial policy and to express intensely patriotism.

Key Word

Sin Chae-Ho, literature of Sin Chae-Ho, patriotism, a historical and biographic novel, anti-Japanese patriotic thought, yours